

보도시점 10. 17.(금) 조간 < 10. 16. (목) 12:00 >

상생페이백, 9월 환급(페이백) 대상자 415만명에 총 2,414억원 지급

- 접수 한 달(9.15~10.14.) 동안 총 10,579,937명 신청
- 9월 환급(페이백) 지급 대상자 415만명, 1인당 평균 5.8만원 환급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16일(목)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,058만명이 신청했으며, 9월 환급(페이백)으로 총 2,4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.

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%(월 최대 10만원)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.

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(9.15~10.14) 동안 약 1,058만명이 신청했다. 지역별로는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신청 비중이 54%(570만)로 나타났으며,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(6.4%), 경남(6.0%)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. 연령별로는 30대가 25.4%, 40대 24.8%, 50대 19.6%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.

10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,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환급(페이백)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총 415만명(대상자* 1,012만명의 41%)이다.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10월 15일에 총 2,414억원의 환급액(페이백)이 지급됐다.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8,155원이다.

* 환급(페이백) 신청자 중 지원요건(만 19세 이상이고 '24년 카드실적이 있는 국민)을 충족한 자

2,414억원은 백화점·아웃렛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소비액을 제외한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20%를 환급한 것으로, 약 1조 2,070억원(지급액의 5배)의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·소상공인 및 전

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.

한편, 10월 10일 이후 환급(페이백)을 신청한 국민이라도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이 있을 경우, 오는 11월 15일에 10월분 환급액(페이백) 지급 시 9월분 환급액(페이백)도 함께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“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”이라며, “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민생지원TF (상생페이백)	책임자	과 장	서정언 (044-204-7890)
		담당자	사무관	전상용 (044-204-7904)
			주무관	김명철 (044-204-7881)
			주무관	백재준 (044-204-7896)
			주무관	김지연 (044-204-7905)

